

# 전주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든다

### 생활폐기물 수거·배출 문화 선진화 위한 대시민 홍보·단속 강화 등 생태도시 기반 구축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녹색실천운동을 확대해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생활폐기물 수거·배출 문화 선진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단속 강화 △폐기물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 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원화시설 구축 △재활용을 선도하는 자원순환도시 구축 등을 추진해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배출 문화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환경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 강화를 통해 '정결한 자원순환형 생태도시'에 걸맞은 청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의 단순 홍보물 배포 등 아날로그 방식의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에서 벗어나, △폐기물처리 시설 견학 등 현장체험형 교육 확대 △생활밀착형 홍보 동영상·민화 제작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양심화단 조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청소행정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효과적인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위해 △1개동 1 단속장비 운영을 통한 밀착단속 △무단투기가 빈번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또 불편민원 신속 해결을 위한 'One-Stop' 스마트폰 앱을 신설하고, 시내 중심지 중점관리구역 지정을 통



**학이시습의 날** 2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월 중 학이시습의 날 행사에 축하한 도지사를 비롯한 청원들이 빈부패, 청렴 및 음주운전예방 선서를 하고 있다.

한 369일 상시 청소 실시' 등을 추진해 청소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환경친화적인 자원화시설 확충해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 선별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완산구 삼천동 일원에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을 조성, 연간 22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는 소각지원센터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설치 계획용량은 총 400KW로, 시는 올해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자체전력으로 사용하고 이후 연차별로 300KW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연간 8000만원 정도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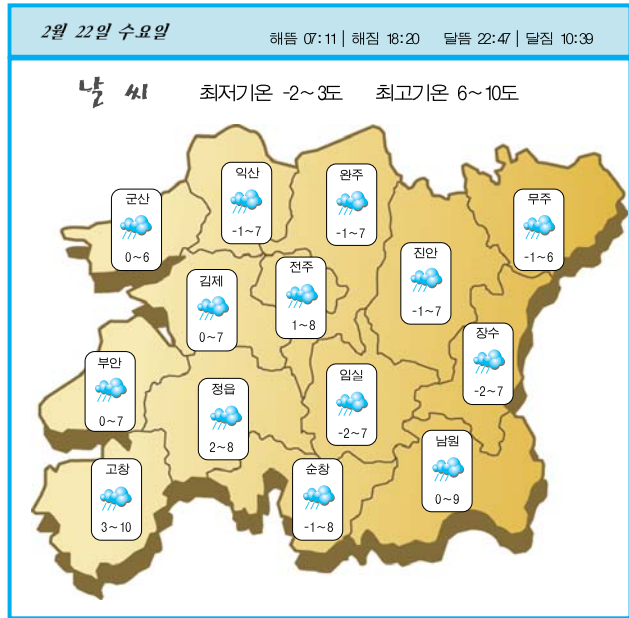
또한 시는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과 초등학교 새건전지 교환사업을 추진하는 등 '4R(시민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재활용 나눔장터 활성화로 쓰레

기 자원화 범시민 확산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재활용품용 새로운 가치를 담은 물건으로 재생산하는 전주시 업사이클 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전주시 북지환경국 관계자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깊은 고민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품격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영재기자



## 전북도교육청 학업 중단학생 2주간 숙려기간 운영 '호응'

학업 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2주간 숙려 기회를 갖게 하는 숙려기간 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업이나 대인관계, 학교규칙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학생에 대해 2주간 등교 대신 심리 상담과 멘토링, 자연문화 체험 등을 하게 하는 학업 중단 숙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은 학업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등이다.

이들 학생은 학교장 결정에 따라 2주간의 학업 중단 숙려기간을 받게 되며 Wee센터나 외부 상담기관을 통

한 심리 상담과 문화체험, 예체능활동 등을 하게 된다.

숙려기간 동안에는 학교 재학 중 1회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학교 복귀의사를 밝힌 학생은 학교 적응을 지원하며 학업 중단 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연계하게 된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치료, 학교폭력으로 인한 무단결석 또는 퇴학 처리된 학생 등은 학업중단 숙려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 전체 학생의 0.73%인 1,827명이 학업 중단을 했으나 2015년에는 1,381명으로, 500명 가량 줄었다.

/정해은기자

## 대입진학지도지원단 꾸려 수험생 지원

### 전북도교육청, 지원단 발대식 갖고 위촉장 수여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이 21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4시, 8층 회의실에서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승국 전북여고 교사를 단장으로 총 58명의 진학전문 교사가 참여하며 권역별 진학부장협의회장단(31명)과 자문위원(9명), 업무팀(10명)도 지원에 나선다.

지원단은 △연수 및 현장지원팀 △입시분석 및 자료개발팀 △대입전형 연구지원팀 △대입 진로진학상담팀

△대외협력팀으로 나뉘어 2018학년도 대입진학지도 정보 및 전략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가운데 입시분석 및 자료개발팀은 대학별 전형자료를 수집·분석해 대학진학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사용 진학지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게 된다.

대입 진로진학상담팀은 온·오프라인 대입상담을 맡게 되며 고 1·2학년 대상 진로진학상담 부스와 콜센터 대입상담교사단 운영도 담당한다.

또 대입전형 연구지원팀은 학생부중

합전형, 특별전형, 수능전형 등 3개 연구 분야를 두고 분과별 집중 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해 대입진학지도 지원에 나선다. 한편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는다.

또 대입전형 결과 및 주요대학 전형요강 분석, 수시·정시 지원전략, 단위 학교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4월과 7월, 12월, 내년 1월에 심층 전문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단은 사교육 진학컨설팅 수요를 해소하고 권역·학교 단위로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 도교육청, 학교급식 안전 점검

도교육청은 우선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북도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학교 식생활관 400개소와 식재료 공급업소 73개소이다.

10개반 40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꾸려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식재료 단계별 위생관리, 지하수 소독장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학교급식 조리음식, 비가열 섭취식품, 학교납품 김치 등 1백건 이상을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합동 점검단을 꾸려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통학차량 운영기관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해은기자

## 전북대 노사관계전문가양성사업단, 수강생 모집

상생적 노사관계 구현을 위해 2014년부터 노사관계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전북대 노사관계전문가양성사업단이 2017년 제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30명.

과정생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노사관계 일반과 노동법 및 제도 노동경제, 인적자원관리 등에 대한 강의, 국내외 연수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노동조합과 인사노무 관리자 등 노사관계 관련 분야 종사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입학지원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http://www.nosa.or.kr>)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노사관계전문가양성사업단(063-270-2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준호 주임교수(경영학부)는 "이 과정은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적 이론과 현장 실무 교육을 체계화해 노사협상의 효과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며 "노와사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이 함께 하는 본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 노사관계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